

광주형 인공지능(AI) 비즈니스 348~349번째 업무협약

광주시, AI 혁신기업 유치로 실증도시 전략 속도

광주시가 시민생활, 공공서비스, 산업현장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혁신기업 유치 및 협력 확대에 힘을 쏟으며 'AI 실증도시'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AI 기반 반려동물 케어 기업 ▲베로 홀딩스, AI 인사평가·디지털 트윈 기업 ▲㈜앤솔루션과 각각 348번째와 349번째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시가 추진하는 AI 실증도시 조성 및 연계해 생활·공공·산업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모델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전문 인재 매칭, AI 실증 환경 제공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 기업의 지역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AI 혁신기업의 지역 진출 촉진 ▲실증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다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협약기업인 '베로 홀딩스'(Bero Holdings Inc.)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반려동물 인공지능(AI) 기술기업으로, 자사 브랜드 '베로AI(BeroAI)'를 통해 다중센서 웨어러블 기기와 멀티모달 AI 분석 기술을 제공한다. 이 회사는 반려동물의 행동·감정 분석을 통해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베로 홀딩스·앤솔루션 업무협약... 연구소 등 지역거점 구축 AI 실증환경·인재 매칭 등 지원... 시민체감 실증서비스 강화 강기정 시장 "공공·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감 있게 추진"

구현하고 있으며, 이종(異種) 간 소통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광주에 연구거점을 설립해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실증과 공공·복지 분야 활용 모델 발굴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앤솔루션'은 AI 기반 인사평가 플랫폼 '헬릭사(Helixa)'와 그룹웨어 '하이파이브(Hi5)'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광주에 기업 연구소를 구축해 인공지능

(AI) 기반 인사관리 기술과 디지털트윈을 연계한 다양한 실증 사업을 전개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서 생활·산업·행정의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는 도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확대와 공공·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시, 지역통계 활용 2관왕 쾌거

호남통계청 우수사례 공모전·지자체 평가서 최우수상 수상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역통계 정밀분석해 정책 운영 호평 생성형 인공지능 분석환경 구축... "데이터행정 지속 확대"

광주시가 지역통계를 활용한 정책 운영으로 호남지방통계청으로부터 우수사례와 지자체로 선정, 최우수상 2개를 거머쥐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라마다 총장호텔에서 열린 호남지방통계청 주최 '2025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앞서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 응모한 호남권 광역·기초 지자체, 시·도 연구원, 한국은행 지역본부 등 52개 기관의 사례를 심사한 결과,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 동별 중점관리군 및 의무방문 대상 선정'을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역통계를 기반으로 ▲맞춤형 돌봄정책 이용현황 ▲의무방문 대상자 이용실적 ▲의무방문 대상자 유형(노인장기요양등급 등) 등, 심한장애, 청장년 1인 가구 수급자) 등을 정밀 분석, 정책 운영에 성공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통계 정책 활용, 통계 개발·개선, 통계역량 강화 노력, 협조도, 통계 인프라 및 관심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광주시가 '2025 지역통계 최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통계 기반 행정문화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분석 환경(생성형 로컬 인공지능 분석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민간·공공 데이터 분석을 전담하는 빅데이터분석 활용센터에 오픈소스 LLM 기반 생성형 로컬 인공지능 플랫폼을 설치, 통계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직원들이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도 복잡한 분석 코드나 함수를 활용하도록 도와 통계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통계는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도구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통계 기반 행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시, 1박2일 미식상품 '게미진 광주' 출시

'김치벨트' 선정 계기 특화코스 강화... 기자 팸투어로 완성도 점검

김치담그기·시장 장보기 등 체류형 관광상품... 지역경제 활력 기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박2일 체류형 미식 관광상품인 '게미진 광주' 출시(12월 5일)를 앞두고, 20~21일 이틀간 미식·여행 전문가를 초청해 사전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 관광상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추진하는 'K-미식벨트 조성사업'에서 광주시가 김치벨트지역으로 선정돼 개발한 특화 프로그램이다.

지난 10월 선보인 당일형 상품이 호응을 얻으면서 이번에 1박2일형 상품을 추가로 선보이는 것이다.

1박2일형 코스는 기존 당일형 코스인 ▲광주김치타운(김치 담그기) ▲양동시장(장보기) ▲양림역사문화마을에 더해 광주시 제1호 지방정원인 ▲광주호호수생태원을 추가, 체류형 체험을 강화했다.

특히 당일형 상품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김치박물관 관람, 시장 맛집 탐방, 여행객이 상황극에 직접 참여하며 양림등을 걸어 체험하는 연극형 도보투어 등 각 장

소에서 충분히 체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했다.

사전 팸투어에는 광주시,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 광주관광공사 관계자와 미식·여행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새롭게 구성된 코스의 현장 운영과 체험 요소를 점검, 코스 개선 및 상품 홍보 방안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상품 운영은 12월까지이며, 예약은 로망스투어(www.romancetour.co.kr)와 흥이여행사(www.ktxtour.co.kr)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김장철을 맞아 게미진 광주김치의 깊은 맛과 광주만의 미식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박2일형 상품 도입으로 관광객 체류시간이 늘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062-525-9775



20일 HD현대상호 야드 내 제1 돌핀안벽에서 열린 'HMM CLOVER'호 명명식에서 (첫 번째줄 오른쪽 여섯 번째부터) HD현대상호 김재을 사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최혜진 여사, 최원호 HMM 대표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상호, 메탄올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 'HMM CLOVER'호 명명식 개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참석

HD현대상호(대표이사 김재을 사장)는 20일 영암 본사에서 HMM(대표이사 최원

호)사로부터 수주받은 9,000 TEU급 메탄올 이중연료추진 컨테이너선에 대한 명명

식을 개최했다. ▲명명 ▲샴페인 브레이킹 ▲리본 커팅 ▲베토동 시연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해당 호선은 'HMM CLOVER'호로 명명됐다. 영암/김희선 기자

이 선박은 HMM사로부터 수주받은 동형급 선박 7척 중 4번째 선박으로, 길이 274.76m, 너비 45.60m, 높이 24.80미터의 제원에 메탄올을 이중연료로 사용하는 최신 선형이다.

메탄올은 기존 선박유에 비해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날 명명식에는 김재을 사장과 최원호 대표이사 등 양사 및 관계사 임직원들 비롯,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배우자인 최혜진 여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해 선박의 탄생을 축하하고 무사 항해를 기원해 눈길을 끌었다.

김재을 사장은 "이번 명명식을 통해 우리 회사와 든든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HMM사와 한층 더 돈독한 신뢰를 쌓게 돼 기쁘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선박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